

‘행복한 책 만들기’ 일깨운 책 《문학 사냥꾼들》

글_ 김삼수 아모르문디 편집장



(문학 사냥꾼들) 이창국 지음 | 아모르문디 | 254쪽 | 값 12,000원

지난해 봄 셰익스피어 극을 여성 캐릭터 중심으로 비평한 번역서를 준비할 때였다. 원고를 다듬고 관련 도판을 수집하는 후반 작업을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을 맡아준 것은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젊은 영문학도, 이창국 교수님을 소개받은 것은 바로 그 감수자(이창국 교수님의 따님)를 통해서였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영문학을 가르치다 막 정년을 하신 아버지가 재미있는 원고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출판사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원고에 목마른 신생 출판사로서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어찌어찌 원고를 입수하여 한 장 두 장 넘기던 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았을 법한 쟁쟁한 작가와 작품들에 이런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이야. 갖은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원고,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한 벌뿐인 희귀본,

문헌 위조를 밝혀낸 ‘문학계의 셜록 홈스’ 등 작가와 작품에 얽힌 때론 가슴 아프고 때론 기상천외한 갖가지 ‘황당’ 사연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 모든 소동과 에피소드의 저변에는 문학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 그리고 끝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탐험 이야기나 추리소설에 못지않은 스타일과 재미가 가득하고 새로운 정보도 많은, 그야말로 욕심나는 원고였다.

나는 곧 주도면밀한 ‘원고 사냥꾼’이 되어 원고를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자를 만나기 전, 원고에 깊숙이 파고들어 보완할 점과 적절한 편집 방향을 찾아내고 싶었다. 25년 전 어느 월간잡지에 연재된 글인지라 수정할 부분이 없지 않았다. 새 맞춤법과 표기법에 따라 원고를 교정하고, 요즘 독자들이 읽기 쉽게 문장을 다듬어야 했다. 도판도 넣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저자와 만난 나는 원고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어

느새 생겨난 저자 못지않은 원고에 대한 깊은 애정은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저자는 원고를 맡기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 아직 뚜렷한 성과도 없는 작은 출판사를 열정 하나만으로 믿고, 원고를 선택 맡기려는 저자가 무척 고마웠다.

그 후 편집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 번 저자를 만났다. 편집자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흔쾌히 수용하고 항상 격려해주는 저자와 작업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책의 모양이 조금씩 갖추어져가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저자를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책 만들기’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 주신 분. 갖가지 걱정과 업무 부담으로 어느새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던 출판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독자들께도 당부 드린다. “행복하게 만든 책, 부디 행복하게 읽어 주시길!” **추천**

삶과 우정을 되새기게 하는 성장소설 《내 무덤에서 춤을 추어라》

2003년 가을이었다. 청소년 출판사라고 시작은 했지만, 낸 책 하나 없는 주제에 뻘한 교훈용 청소년 소설은 내기 싫고, 지향점은 반복 수정되고, 어째야 하나 하던 차에, 에이단 체임버스 작품들에 대한 검토서가 도착했다.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줄거리와 더불어 치밀하고도 섬세한 구성, 시적인 문장이 어우러져 큰 감동을 이끌어내는 작품… 정교한 스토리와 생생한 디테일이 빛나는 작품.”

‘드디어 잡았다’는 번뜩임. ‘생각과 느낌은 고리타분한 독후감 책은 안 만든다고!’

“《내 무덤에서 춤을 추어라》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판매 부수 50만을 넘었습니다!”… 욕하지 마시길. 공상 좀 하면 어떨까.

검토서를 이어 읽었다. “걱정되는 점, 동성애… 지나치게 성숙…” “**일보 단신 : 청소년 동성애 소설. 내용도 다소 어렵다.”, “**서점 독자 서평 : 이런 책이 한국에서 통할지 의문이다. ★★☆☆☆”

미간을 찌푸리면서라도 읽기로 한다.

그런데, 검토서를 훑던 내 눈이 점점 먼 어린 시절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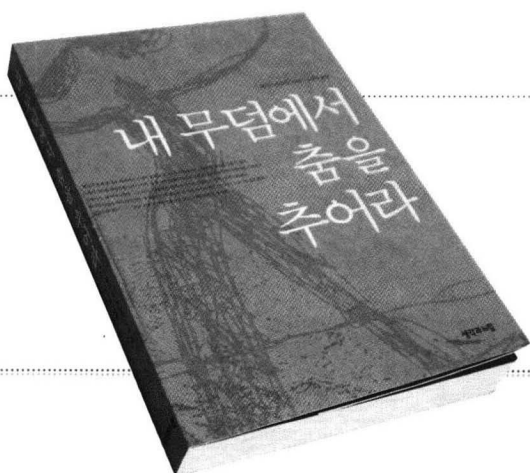
때는 1980년대의 어느 날이다. 친구와 나는 당시 아이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TV외화시리즈 <기동 순찰대>의 편지와 존이 되어 채 마르지 않은 콧물을 매단 채, 둘이서 골목길을 내달린다. “앞서 달리면 안 돼!”, “둘이서 같이!” 무엇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였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났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와 나는 모차르트의 전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차르트가 죽음과 관계된 약속을 친구와 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약속을 했다. 죽음을 걸고. (지금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지만 아직도 유효한지는 서로 묻지 않는다.)

그리고 2007년. 《내 무덤에서 춤을 추어라》의 주인공 헬은 그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 헤매는 과정이 꼭 나를 닮았다. TV 시리즈 속 두 주인공이 함께하는 활약과 ‘단짝 친구’ 맹세를 보며 같은 것을 욕망하거나 친구와 죽음을 건 맹세를 하는 모양새가. 십대 시절은 어떠한가? 헬이나

나나 그리고 독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봄밤이 속삭이는 바람에 밤을 새우는 가슴을 가졌던 그 시절.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고, 피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야만 했던(필떡이는 맹목을 어찌란 말인가), 그런 시절. 이 책은 옛 기억을 건드렸다.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폭소를 자아내게 하며, 때로는 몇 방울의 눈물과 함께.

출간은 그렇게 결정되었고 몇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에이단 체임버스는 한국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독자 서평에 이런 말이 있다. “마지막 장의 역자의 말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이런 수작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났으니 이젠 화답을 해야지! 이런 수작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번역자나 독자, 그리고 에이단 체임버스까지, 이 글을 읽진 않겠지만, 나도 화답을 해야겠다. “수작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_ 황호동 생각과느낌 대표



《내 무덤에서 춤을 추어라》 에이단 체임버스 지음 | 고정아 옮김 | 생각과느낌 | 391쪽 | 값 12,000원

전 세계 유명 블로거들과 직접 인터뷰 진행 《블로그 세상을 바꾸다》

글_장성두 체온365 편집기획실 실장



《블로그 세상을 바꾸다》 로버트 스코블, 셸 이스라엘 지음 | 홍성준, 나준희 옮김 | 체온365 | 360쪽 | 값 12,800원

‘도서출판 ITC’로 적을 옮기면서 독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파스한 창이 될 수 있는 책들을 만들어 보자고 사장님과 의기투합하였고 그 결과로 ‘체온365’라는 임프린트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블로그 세상을 바꾸다》를 ‘체온365’의 만리로 출간하게 되었다. 여러 후보군의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첫 책으로 낸 이유는 새 출판사에 걸맞은 ‘블로그’라는 신선한 내용과 이 책 전체에 걸쳐 녹아 있는 저자들의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두 명의 전문 블로거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유명 블로거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려 방문객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 그들의 의견을 개선시켜 나가는 형태로 집필하였다. 블로그의 운영이 어떻게 한 개인을 혹은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논거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저자들의 주장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많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지만, 저자

들이 책의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고객(혹은 방문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고객을 무시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다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얻을 것임을 다양한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 이는 블로그를 이용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현실 속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의 진리가 아닐까. 이 책이 블로그라는 온라인의 혁신적인 도구에 대해 찬양하고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진솔함이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전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번역서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의 사례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점이였다. 싸이월드가 왜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독자들이 얻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역자분과 상의하여 우리나라의 블로그 현황과 블로

그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집필하여 부록으로 실어주었다. 그러나 지면상의 이유로 독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국내 블로그의 사례를 엮어 책으로 내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

웹과 떨어져서는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도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은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소통이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인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 소통을 멋들어지게 이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블로그일 것이다. 고객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세상의 중심은 나임을 확인하고 싶은 개인들에게 이 책이 그 고민을 던져 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추천**

책보다 먼저 자전거부터 타심아...

《시티 라이더 : 자전거, 도시에서 즐겁게 타기》

〈출판저널〉에서 이 책에 대한 기획 의도며 그 내용에 대한 원고 청탁을 해왔다. 일주일이면 씩씩한 글이 나오리라 느긋하게 구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늘이 마감일이고, 그저께부터 은근히 속이 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할 만한 말이 없는 책이다. 자전거 그까지 것 마음만 먹으면 두 시간이면 배우고, 세상에 자전거 못 탄다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 자전거가 지천에 깔려 있고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자전거 책을 쓰며 읽을 것이며, 그런 책이 있더라도 자전거 여행기가 아닌 이상 무슨 대단한 서평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아시는지? 마음만 먹으면 몇 대라도 살 수 있고, 신문 보면 자전거 공짜로 받던 때도 있었던, 그런 하찮은 자전거가 우리나라 실상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반절에 미치지 못한단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1,600만 대인데, 자전거는 8,00만 대쯤이다.

이쯤에서 각설하고, 작년 한 온·오프 동호회의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만에서 8만으로 늘었다면 웬만한 동호


회 회원수 무시한다고 하겠지만, 그게 자전거 동호회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 성세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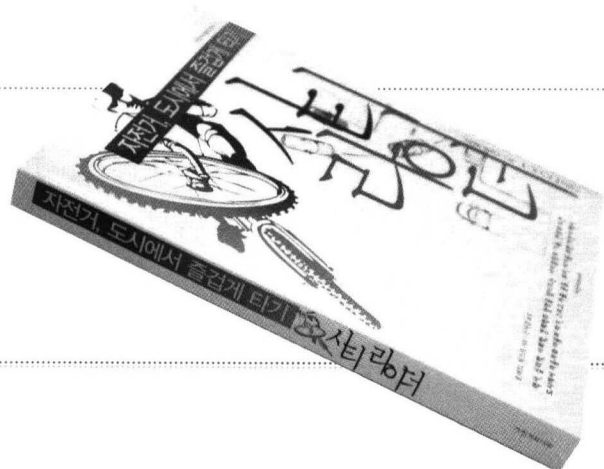
그래서 조사해 보니 역시나 자전거에 관한 책은 거의 전무했다. 하루에도 만여 명이 다녀가며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수백 건씩 글을 올리는데, 그 자전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줄 만한 책이 국내에는 없었던 것이다. 마침 흥은택 기자의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이라는 신문 연재 기사에 이 책이 언급되었다. 바로 계약해서 번역에 들어갔다. 그림이 조금 부족하고 자전거와 무관할 듯싶은 자동차며 도시며 도로며 대기오염까지도 언급하는 등 자전거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너무 방대하게 실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읽어보니 실용서치고는 인문서 마냥 읽는 맛이 쏠쏠했다. 내친 김에 원주와 색인은 물론, 각주까지 정성스럽게 달았다.

그리고 나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가 없는 인도로 한강변 자전거 도로로 다녔지만, 번역자가 간간이 던져주는 원고를 읽고 자전거와 도시

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덕분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동차와 함께 차도에서 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려다 팔뚝과 무릎이 깨지고 돌부리에 치여서 흠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것이 외에는 지난 1년간 별 위험이나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그 동호회와 이 책 덕분이다.

참고로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차도의 우측가장자리로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누린다. 거기다가 병목현상이라는 것도 없고 차들이 막히는 구간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며, 상습적으로 교통지체가 일어나는 러시아워에는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서 출퇴근 시간이 결코 느리지도 않다. 자전거를 타면 밥맛까지 좋아지고 꿈으로 운동까지 된다. 알 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1석 100조에 0해100익이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책은 그만 읽고 자전거를 타기 바란다. 이 책의 이름은 알 필요도 없다. 먼저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이 책을 찾게 될 테니까. 그럼, 안라(안전 라이딩)하시라! 



글_ 신현돈 도서관엽출판사 대표

《시티 라이더 : 자전거, 도시에서 즐겁게 타기》
로버트 허스트 지음 | 신사강 옮김 | 도서관엽출판사 | 316쪽 | 값 15,000원